

News

은행권 증금리 대출 이자상한 10%→6.5%로 낮아진다

한국일보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업권별 금리상한을 은행권은 10%에서 6.5%, 상호금융은 12%에서 8.5%로 낮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중, 저신용자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주어지고 규제도 완화...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저신용차주 많이 흡수할 것 기대

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에 당국 불개입... "현실적 판단 한 듯"

이데일리

금융당국,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 은행 영업부문 매각 여부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 전제... 씨티은행의 결정을 막을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 판단도 한 것으로 해석

돈 어디서 빌리나...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막혔다

한국경제

SC제일은행,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 잠정 중단...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세 번째... 실수요자들의 불편 가중 전망... 이달 초 금융채 1년물과 3년물을 지표금리로 삼는 퍼스트홀론 변동금리 상품 판매 중단한 바 있어... 현재 5년 금융채 고정금리 대출 취급하고 있었으나, 신규 취급 중단

한국은행 "11월부터 카카오뱅크에서도 국고금 수납 가능"

이데일리

한은,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 11월 1일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서도 국고금 납부 가능... 한은이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전북은행과 국고금수납점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국고금수납점 승인 받아...

금융지주 손보사, 차보험 손해를 개선에 3분기 실적 활짝

조선비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자동차 이용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를 개선... 대형 금융지주의 손보사들의 두 자리 수 성장률 기록 및 흑자 전환... 비금융지주 주요 상장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 손해를 개선으로 호실적 예상... 보험업계 관계자 "4분기부터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자동차 이용량 증가하며 내년부터 실적 악화 가능"

벼랑 끝 MG손해보험,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안 다시 낸다

머니S

MG손해보험, 28일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 이번에도 불승인을 받을 경우 마지막 단계인 명령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 주식소각, 영업정지, 임원 업무정지 등 사실상 파산 절차에 가까운 강도의 조치 받을 수 있어... 6월말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97% 집계

삼성증권, 야간청약 효과 '톡톡'... 대형 증권사로 확산되나

머니S

최초로 야간 청약 제도를 도입한 곳 삼성증권... 카카오페이 공모주 야간 청약은 첫째날인 25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제공... 청약 건수는 총 12만권, 첫날 청약 건수의 30.8%... 야간 청약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며 업계에서도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고민하는 분위기... 증권업계 관계자 "기존 제공 서비스에서 시간만 조정하면 업계 전반으로 확대 가능"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친화정책 펼치는 증권사

e대한경제

증권사들, 자사주 매입 적극적... 저평가된 주가 흐름을 바꾸기 위한 주주 가치 제고 일환...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KTB투자증권, SK증권 등 5개사가 자사주 매입 공시... 신영증권 제외 4개 증권사에서 주가 부양효과 나타나...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